

속 기록

- 회 의 명 : 제378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4. 7. 26(금) 14:00 ~ 16:02
- 장 소 :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회의실
- 출석위원 : 정병국 위 원 장
- 김미라 위 원
- 김진각 위 원
- 배은주 위 원
- 서승미 위 원
- 이훈경 위 원
- 장미진 위 원
- 장인주 위 원
- 정갑영 위 원
- 정정숙 위 원
- 정종열 위 원
- 홍성태 위 원

1. 성원 보고

정병국 위원장 :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7기 때부터 함께 합류하셨던 3인의 위원님들께서 오늘로 마지막 회의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끝난 다음에 퇴임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78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는 2024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심의 결정의 건 등 의결안건 6건, 보고안건 2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김효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근로자 대표로 참석하였고 회의운영의 투명성과 제언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공연예술팀 진성제 대리를 포함한 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위원 12인 모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 선언

정병국 위원장 :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의결 사항

정병국 위원장 :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1065호 2024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2024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심의 결정의 건입니다.

올해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은 총 5억 1,100만 원이 있었는데 지원결정금액은 2억 7,272만 원이었습니다.

총 지원결정건수는 36건에 48명이 신청했는데 지원결정은 35건에 총 45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붙임자료를 보시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원대상은 최근 5개년(2019~2023) 동안 민간 및 국·공립 예술단체에서 연수단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청년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전환 또는 채용해서 2024년도 현재 대상자와 정규직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6월 10일부터 7월 1일까지 22일간 정규직 고용전환 인력의 하반기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고를 내서 접수결과 36건 48명의 접수를 받았습니다.

7쪽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7월 16일 예술가의 집 영상회의실에서 지원심의를 진행했고, 총 8인의 심의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장르별 심의위원 7인과 노무전문가 1인을 같이 구성해서 심의했고 8쪽 5번에서 지원심의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총 35개 단체 45명이 선정되어서 총 2억 7,272만 원의 지원금이 결정되었습니다. 문학분야 1명, 시각예술분야 1명, 연극·뮤지컬분야 11명, 무용분야 4명, 음악분야 10명, 전통예술분야 4명, 문화일반분야 4명 등 총 35개 단체 45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10개 처는 조건부로 지원결정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계약서에 ‘정규직’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서 그렇게 결정되었는데요. 이후에 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라는 것을 확인 후에 결정하기로 조건부를 명시하여서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행정결격은 1개 처가 있었습니다. 필수 서류가 미제출 되어서 1개 처는 행정결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6번의 심의결과 분석은 서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지원심의 결과는 8월 1일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 :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가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연수단원 사업이 1997년부터 시작되어서 굉장히 오래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전환 장려금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김미라 위원 :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서 시각예술 파트의 지원결정액이나 지원의 수가 적은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 결정이 되었거든요. 시각예술파트의 신청 건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1개 기관만 빼고 다 반영이 된 결과입니다.

홍성태 위원 : 각 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지원금액이 좀 다른데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1인당 최대 1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120만 원을 신청한 단체와 60만 원을 지원한 단체가 좀 다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것은 연차적으로 달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부 다 지원을 해 주고, 2년차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액수와 고용하는 기관에서 매칭을 해야 되고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진각 위원 : 이 사업은 연수단원을 정규직으로 바꿔주면 거기에 상응하는 장려금을 주는 취지.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맞습니다.

김진각 위원 : 그렇다면 심의기준도 정규직으로 전환비율이 높게 책정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심의기준이 정규직 전환 여부가 25%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5% 정도밖에 안 되면, 70% 중에서 25%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비율이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높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낮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비율이 적정하진? 그게 좀 의문이 듭니다. 일단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이라고 한다면 정규직 전환비율이 심의기준에서

높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정병국 위원장 : 이걸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이것은 정규직으로 전환이 무조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기본조건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조건을 넣기 위해서 이 비율을 넣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무조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여부는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값이고요. 나머지 보수 수준이나 근로계약의 구체성, 근무조건의 적정성을 넣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 여부는 25%라는 기본값을 넣어 둔 것입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전환을 유도하려는 취지가 아닌가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 여부는 기본값이고요. 다른 조건도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정규직 전환을 했지만 나머지 근로조건도 그 근로자에게는 필요하잖아요.

정병국 위원장 : 그렇다고 하면 정규직 전환 여부를 심사항목으로 넣을 필요가 없죠.

김진각 위원 :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병국 위원장 : 그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김진각 위원 : 그러면 사업명이 이렇게 가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정규직으로 다 전환된 데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배은주 위원 :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보통 받는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유지인 것 같은데요.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보통 이런 사업들을 받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하고 2년, 3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고용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를 추적 관찰해야 할 것 같거든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런데 정규직이 되면 임의로 자를 수가 없거든요. 노동법에 근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굳이 추적을 하지 않아도,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마음대로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배은주 위원 : 문화예술단체는 고용유지가 힘들더라고요.

정병국 위원장 :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정규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갑영 위원 : 여기에서 말하는 정규직의 의미는 뭔가요?

배은주 위원 : 1년 이상?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도 정규직으로 계산을 합니까?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기간의 정함이 없이 고용의 안정을 갖게 되는 개념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예술계에서 고용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갑영 위원 : 예술계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연수단원이라는 존재는 어떤 건가요?

정병국 위원장 : 연수단원은 인턴입니다.

정갑영 위원 : 인턴인데 예술인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술단체의 행정직원을 말하는 겁니까?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두 개념이 다 있습니다. 실연자도 있고 기획행정 인력도 있고 무대기술 인력도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공공기관도 해당되는 겁니까?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국·공립 단체도 다 해당이 됩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런 데에 지원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거기는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도 있을 것이고요. 원래 취지에 따르면 이런 곳보다는 민간 영역에서 고용하는게 재정상 어려운 단체를 지원하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요.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국·공립 단체들이 들어가 있었던 이유는, 국·공립 단체의 실연자 비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국·공립 단체의 행정 인력들도 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단원 지원 단체 중에 민간단체 비율이 더 높고요. 사실은 장기적으로 국·공립 단체의 비율이 낮아지고 향후에는 줄어들게 방향이 설정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하면, 연수단원이 실제로 가서 본인들이 일을 배울 때 배울 점이 조금 더 있는 기관을 선호하는데요. 열악한 기관보다 배울 점이 많은 기관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상충되는 지점이 있어서요.

정병국 위원장 : 그게 딜레마인데요. 저도 이것을 처음에 보고를 받고 “왜 국·공립이나 큰 기업이 하는데 지원을 해야 되냐?” 라고 했는데요. 지원자들이 그쪽을 선호하고 있고요. 일단 국·공립은 지금 거의 줄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결과를 보시면 예산은 5억이 넘는데 반 정도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직화하는 것에 대해서 웬만한 데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특히 미술관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언감생심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적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수요자들의 입장에서는 국·공립이나 조금 더 안정된 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데는 보다 더 열악한 데를 지원하려고 하고요. 그것이 상충되고 아예 열악한 데는 채용한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요. 돈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 준다고 해도 하지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1년짜리 인턴으로 전부 다 끝나더라고요.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위원회 입장에서는 정책적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공립으로 되어 있는 데는 이 사람 하나가 없다고 해서 여기가 운영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그래서 인원수를 조정하거나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신청자가 원한다고 그런 식으로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면 거의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정책이지 우리 예술정책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회 사무처에서 이것을 잘 정리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가? 대상은 누구고요.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단원이 거기에 필수적인 실연자들이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단체의 인턴으로 갔다가..... 인턴은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관이 좋아서 있으려고 하는데 지원해 주자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점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정숙 위원 :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재단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보충해서 드리자면, 사실 지역문화재단들도 의외로 인건비 등이 굉장히 고정적이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인력을 쓰고 싶어도 인력을 갑자기 늘릴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상위 기관이나 지자체 행정파트와 협의를 할 때 이렇게 매칭을 하게 된다면 허락해 주는 경우가 좀 있어요. 공공부문이니까 인건비와 관련된 예산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힘들어요. 그래서 인턴을 쓰면서 이런 예술위원회 사업에 응모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덕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지역에서 이런 수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인 방향을 재설계 하는 것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런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지역재단을 서포트 하는 다른 방식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서 지역과 예술위원회가 이렇게 간다면 지역은 결코 자립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와 문체부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지역재단에 자율성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처에서 내년은 어떻게 할지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정병국 위원장 : 이 부분은 정갑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지역문화재단도 예산을 지자체에서 받아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력이 필요해서 인력을 늘려달라고 하면 쉽게 안 늘려줘요. 다 후순위로 밀리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따왔습니다.”, “인턴을 데리고 있습니다.”, “1년, 2년, 3년까지 우리가 운영한다고 하면 이러한 단계로 지원을 해 준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그다음에 정규직화를 해서 인건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유인책이구요. 대기업에서 하는 문화재단도 역시 “왜 이것을 받아야 되느냐?” 라고 얘기했더니 그것도 모기업에서 인원을 늘리고 확장 승인을 받는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을 엮어서 늘리면 계기가 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정말 이게 우리가 할 사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주신 이러한 의견들을 들어서 추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 스터디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음 연도에는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해보기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안건번호 제1066호 2024년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예산잔액 활용 추가 지원사업 추진(안)입니다. 이어서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 이어서 고용전환 장려금의 잔액에 대한 추가 지원사업 추진(안)에 대한 의결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5억 1,100만 원이 고용전환 장려금 예산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2억 7,272만 원이 고용전환 장려금 사업의 결정액이 되었고요. 나머지 2억 3,800만 원에 대한 추가 지원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액이 발생함에 따라서 잔액을 어떻게 사용할지 생각하다가 연수단원 사업에 대한 현장의 수요는 굉장히 높은데요. 18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연수단원 선정단체 중에 장르별 지원심의를 한 결과에 평점을 다 매겼습니다. 우수단체별로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문화일반 등 비율에 따라서 단체의 수를 선정했고 단체별로 추가지원 인원을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총 23명을 더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렇게 문학 1명, 시각예술 3명, 연극 6명, 무용 2명, 음악 5명, 전통예술 4명, 문화일반 3명을 단체의 점수별로 위에서부터 1개 단체씩 그리고 시각예술 3개 단체, 연극 6개 단체, 무용 2개 단체, 음악 5개 단

체, 전통예술 4개 단체, 문화일반 3개 단체로 해서 총 23개 단체를 추가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예산을 소진할 수 있게 된 부분이고요. 총 4.5개월분으로 8월 중순부터 지원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추가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전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안전번호 제1067호 2024년 공연예술 창작주체 창작공간 지원사업 잔여예산 활용예산 - 이전지역 예술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21페이지입니다.

안건은 2024년 공연예술 창작주체(창작공간) 지원사업 잔여예산 활용계획 - 이전지역 예술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21페이지에 주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예술위가 보유한 우수한 문화예술 자원을 나주 지역사회에 매개함으로써 지역 내 문화예술위원회 인지도 제고와 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사업목적 외에도 지자체, 나주시와 같이 공동 시범사업을 통해서 나주시에 있는 다양한 예술공간들이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모색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진행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 정시공모. 그러니까 2023년 12월에 발표한 이후 잔여예산을 통해서 창작공간과 예술가를 위한 공연기획 프로그램. 중대형 공연장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요. 그 결과 제376차 위원회 전체회의 때 총 2건이 선정되었고, 잔여예산 약 4억 8,0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잔여예산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그간에 공간사업과 관련하여는 충분히 공모를 했기 때문에 잔여예산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교류협력팀이 주관하고 있는 지역소멸 위기 대응 지역활성화 사업이나 나주 지역의 공연장 기획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내용을 반영해서 의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위원회에서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예술위원회가 나주로 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기관에 대한 인식도가 미미하고 지역 내 예술위원회의 역할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 나주시를 범위로 해서 이전지역 예술활성화 지원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나주 지역에서 그간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장르나 형식 등 좋은 예술 콘텐츠를 지역의 공연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기획공연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실 나주시에 민간 등록 공연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연장 운영 주체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나주문화예술회관이 유일하게 등록 공연장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나주문화예술회관은 민간 공연장도 아니라는 문제가 있고요. 혁신도시 내에 보면 한전이나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나 몇 개의 공공기관들이 공연이 가능한 다목적홀을 겸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등록 공연장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은 파악했고요. 사업기간은 12월까지고 4억 8,000만 원 중에 3억을 나주시에 좋은 공연을 유치하는데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 방식을 봤을 때, 고민했던 것은 이것을 주관처로 공모해야 하나 싶었지만 줄 곳만 명확하다면 굳이 행정비용을 별도로 쓸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을 오히려 절약하고 단체에게 더 많은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주문화예술회관이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하는 방법을 생각했지만 이 역시도 그렇게 되면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지원해야되기 때문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업 수행방식은 예술위원회에서 직접 이 기획공연을 담당할 예술단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교부, 정산을 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세부 내용을 보시면 예술단체의 선정은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에 참여한 단체 중에 현재 지역 공연장 유통이 가능하면서 어느 정도 호평이 있고 나주문화예술회관이나 지역 쪽의 내부 리서치를 통해서 지역에서 그동안 접하기 힘들었던 장르나 형태의 작품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유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예를 들면 최근 3년간 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창·제작지원사업에 선정되었던 단체. 그러니까 공연예술창작산실이나 중장기창작지원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붙임1과 붙임2에 리스트로 정리해 놓았고요. 특히 2024년도에 공연예술창작산실 2차 제작 지원사업 별도공모 결과 발표를 한 단체가 있다면 아마 이 기간 동안 공연을 할 터인데요.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예술위원회 지원사업 중에 지금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유통사업으로 선정되어 진행하고 있는 단체들 중에 섭외해보는 것이 스케줄이나 공연을 준비하는데 시간 절약이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혜자가 나주시인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서 희망하는 단체가 있다면 그 부분도 한 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원의 예산인데 전체적으로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편당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로 생각하면 8회에서 10회 정도의 공연이 예상됩니다. 다만, 여기에서도 변수가 있는데요. 단체 당 1회 공연이 아니라 2회 공연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공연 횟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원내용은 공연진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될 것이고요. 가급적 주어진 예산 안에서 더 많은 공연단체가 섭외되고 나주시에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8월 초에 단체선정이나 일정 조정을 하고요. 가급적 사업수행이 9월부터 12월까지, 평균적으로 계산하면 월 2회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요. 단체의 섭외나 진행되는 과정은 오늘 의결해 주시면 이후의 절차는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조금 더 구체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요예산 3억 원은 말씀드린 그 내용이고요. 참고자료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단체선정은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아닙니다. 공모를 통해서 하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그리고 기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선정한다고 해도 단체의 스케줄도 봐야 해서 변수가 좀 있습니다.

서승미 위원 :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있는 요소는 없을까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원칙적으로는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게 맞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잔여예산 기획사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사무처뿐만 아니라 장르별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승미 위원 : 그러니까 잔여예산을 그런 식으로 돌리는 것도 문제가 없고요? 그것이 궁금해서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보조금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공모방식이 맞아요.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사유가 있는데요. 애초에 공모를 하지 않고 지정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2023년 12월에 공

모를 했고, 잔여예산을 가지고 중대형공연장 공모라는 추가공모를 했었고요. 엄격히 심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다시 공모를 해서 창작공간지원 사업을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니즈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 하는 방식이 가장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공모를 두 차례 했는데 중대형 공간 공모가 없었던 것이죠.

김진각 위원 : 22페이지의 사업취지를 보면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장르, 형식의 콘텐츠라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최근 5개년 확인해 본 바로는 나주문화예술회관은 정부 공모사업에 지원하거나 선정된 적이 최근에는 없습니다. 뮤지컬 공연이 한 번도 된 적도 없고, 무용 쪽 공연도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음악 쪽이라고 해도 동호회 수준의 오케스트라 공연이라서 참 척박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절차는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됐던 공연에 대한 리스트업을 해서 해당 공연장에 공연 방식을 찾고, 그 부분을 가지고 자료를 정리하고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많은 지역문화재단 공연들이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상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권장하고 지향하는 새로운 영역을, 그렇다고 그런 매니아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수요가 없는 것도 아닌데 늘상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대중적인 공연이 아닌, 수월성 높은 공연을 보려면 서울에 가야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기획해서 지원하는 거라고 하면 조금 더, 자체적으로 선정했을 때와 다르게 한번 접근을 해 보자는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정숙 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우리 예술위원회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고를 해 주시면서 나주문화예술회관이 좀 척박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기 보다는 나주 시민들의 수요에 따라서, “어떤 수요가 있어서 이런 공연들을 초빙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주문화예술회관의 입장을 정확히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불쾌한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 주의해야 합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나주문화예술회관 팀장님과 말씀을 직접 나누면서 들었던 말씀인데요. “나주문화예술회관의 환경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나주시 자체가 문화예술 향유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특히 예술위원회가 나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정숙 위원 : 저도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그들의 입으로 자기들의 수준이 낮다거나 자기 지역의 공연 현황 실태가 그렇다고 표현하는 것과 우리 예술위원회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알겠습니다.

정정숙 위원 :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시정하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한 기관이 있는 곳은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화예술 인프라가 안 깔려 있고요. 세종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업을 세팅할 때 이전지역 예술활성화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이미 알고 그런 공연을 유치함으로써 그곳의 예술향유권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공연은 이렇게 우수 공연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관람객 수는 어떻게 되는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인구분포도 등에 대한 서치도 필요해서요. 아무리 우수한 공연을 해도 관람객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잖아요. 나주 지역의 인구분포도나 예술향유를 할 수 있는 지역 시민들의 분포도도 조금 조사를 해서 공연을 올렸을 때 관람객도 많아야지 남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잘 쓰여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혁신도시에 일단 가 있는 사람들이 완전 문화 소외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가장 문화적 욕구가 강한 사람들. 그런 연령층이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해 보면 지역에서 올리는 공연을 가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안 맞는 거죠. 일각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여기에 와 있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솔하게 듣는 겁니다. 문화 행정을 최일선에서 한다는 콘텐츠진흥원도 내려가 있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내려가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직접적으로 혁신도시를 위해서 뭔가를 한 게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한번 접촉을 해 보자.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예술로소풍을 해 봤더니 폭발적입니다. 시에서는 “자기들이 더 예산을 지원할 테니까 더 해 달라.”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앞으로 더 진행을 하게 될 정도로 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영역의 장르들을 가지고 계속 접촉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해서 나주혁신도시가 성공하면 다른 도시도 요구하게 될 것이고 확산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종열 위원 : 저도 한 말씀드리자면, 좋은 공연을 유치하려면 사실 예술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 나주에서 딱 한 공연을 하기 위해서 내려간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가 그렇게 떨지 않으니깐 광주에 좋은 단체들이 오면 같이 엮어서 한다든지, 보통 요즘은 유명한 예술가들이 서울에 올 때 서울에서만 하지 않거든요. 인근 지역을 쪽 돌기도 하고요. 심지어 김포 같은 데에서도 한번 합니다. 미리 한번 해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광주하고 한번 엮어서 하시는 것도 어떻게 좋지 않을까?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주 쪽하고도 일정을 협의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안건번호 제1068호 2024년 공연예술 창작주체(창작공간) 지원사업 잔여예산 활용 계획 - 지방소멸위기 대응 창작공간 활용 기획공연입니다. 이어서 정창호 공연예술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번호 제1068호 2024년 공연예술 창작주체(창작공간) 지원사업 잔여예산 활용 계획 - 지방소멸위기 대응 창작공간 활용 기획공연입니다.

주요 내용의 사업목적은 보시면 2024년 신나는예술여행 기획사업 지방소멸위기 대응 문화예술사업에 실질적인 지역의 변화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선정된 6개 지역을 대상으로 공연예술프로그램 활성화 지

원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예산은 창작공간 지원사업의 잔여예산 1억 8,000만 원을 받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주요 진행경과는 같은 내용이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지방소멸위기 대응 문화예술사업에 참여중인 6개 지역 내 등록 공연장 또는 민간 공연장입니다. 다만, 붙임 자료에도 첨부해 드렸는데요. 역시 해당 지역 내에 등록 공연장이 없거나 활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를 해서 지역 내의 미등록 공연장이나 정말 안 되면 야외무대까지도 이것을 확장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기간은 역시 연말까지고요. 사업예산은 1억 8,000만 원입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던 이전지역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이 사업 방식은 지방소멸위기 대응 문화예술사업 참여단체를 대상으로 지정 교부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당 지역에 직접 공연단체를 섭외해서 지역에서 공연하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역 소멸위기 대응 사업의 사업취지를 고려했을 때 대표 단체에게 지정교부를 해서 이 단체가 지역 내의 예술가나 주민들 그리고 관련된 공연장들의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만들어나가는 게 이 사업의 취지에도 적합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을 보시면 각 단체의 기존 사업내용인데 6개 지역의 대표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과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공연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해당 지역이나 공연장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의 니즈를 반영한 공연기획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는 것이고 연 2회 정도의 공연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기획공연을 하면서 지역 내의 예술가나 예술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이 지역 출신 중에 수도권에 있는 예술가나 예술단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함께 연계해서 좋은 기획공연,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공연을 기획했으면 좋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자원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이 단체가 기획을 했고요.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이미 기획하고 있는 공연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중복 불가로 했습니다. 이 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래 표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업계획을 내기 전 단계에서 사업 자문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구체화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컨설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가 이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지역의 기획공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는 편성 가능한 예산 항목은 단체와 관련된 직접경비는 아니고요. 이 행사에 필요한 프로젝트 비용으로 쓰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참여단체의 역할은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 및 협의하면서 저희 위원회 또는 소멸지역대응 관련된 자문위 등을 통해서 이 사업이 정교화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기획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련된 홍보아카이빙 정산 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추진 체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잔여예산을 활용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교류협력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참여단체와 저희 팀 그리고 자문위원회를 유기적으로 구성해서 좋은 사업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다면 8월에 사업계획 컨설팅을 통해서 확정하고 교부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3,000만 원으로 배정되어 있어서 1억 8,000만 원이 되겠고요. 관련된 지역단체에서 냈던 기획안이나 해당 6개 지역의 등록 공연장 현황은 붙임1과 붙임2 자료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 항목을 보면 38페이지에 영유아돌봄비가 있는데 참여 예술인의 아이들을 돌보라는 뜻인지? 아니면 관객의 아이를 돌보는 것인가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영유아 자녀가 있는 참여 예술가들이 프로젝트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 영유아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사실 전체 공모사업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승미 위원 : 그래요? 이런 목이 있습니까?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서승미 위원 : 저는 처음 봤어요.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연습하는 예술가들을 위한 겁니다.

서승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진각 위원 : 지금 지역소멸위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예술 사업을 통해서 접근한다는 것. 이런 것도 사실 일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단체에 다시 지원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지역소멸위기 대응에 어떤 식의 결과물이 나올 것이냐도 따져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지만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결국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것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애항심을 갖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인구가 늘어나야 지역소멸을 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즐길 것이며 어느 정도 외지인들이 와서, 아니면 관광객들이 와서 이것을 볼 것이냐?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그러니까 홍보마케팅이 대단히 중요하고 기존 신나는예술여행이라고 하는 지역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에 대응한다고 하는 차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어야 이 사업의 효과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한데 허술해 보여요.

정병국 위원장 :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처음부터 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소멸되는 지역을 문화로 회생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는 18군데를 선정해서 1억 원씩 예산을 나누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처음에는 “3군데를 정하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호남권, 영남권, 중부권으로 3군데를 정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향후 공모 해서 선정되는 지역은 그 지역을 위한 사업은 무조건 준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한다. 그런데 그 지역을 선정할 때 이런 사업들을 맡아서 수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느냐 아니냐를 가늠해서 선정한다. 이런 전제조건을 심사위원들과 논의하고요. 그랬는데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너무 선택과 집중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메인과 서브 등 6군데를 정하자.” 그래서 결국 6군데를 정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을 정할 때 기준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 지자체나 문화재단에 그냥 예산을 주고 그것으로 끝나면 이것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관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자체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활동가가 있는 지역. 그 활동가들이 지역주민들과 상당한 유대관계가 있는 지역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응모한 곳에 대해서 실사를 다 진행했어요. 저도 직접 다 나가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이것을 왜 그렇게 직접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그 다음 사업들도, 지역에 가는 것은 따로 공모하지 않고 그 지

역은 받을 수만 있으면 그냥 준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 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선정해서 그냥 예산을 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을 계속 체크하면서 심사위원들이 컨설팅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선정하러 한 번 갔고요. 그다음에 킥오프 행사를 하는데 심사위원들이 다 가고 저도 몇 군데를 갔고요. 직접 갔을 때는 그 지역의 기관에서도 나오고 문화재단도 나오고 지역주민들도 다 나와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을 전부 다 팀별로, 사업별로 정리를 해서 그 지역에 그 리스트를 줍니다. 그 리스트 기반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기획서를 내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죠. 이런 일환으로 잔여 예산을 가지고 “그것도 여기에 하자.”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산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협력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정숙 위원 : 잠시만요, 위원장님. 설명을 어느 정도 들었는데요. 결국 문화예술적인 수준을 높이고 그들의 향유도를 높여서 결국은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며 정주의식을 강화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지역소멸에 어떤 예방적인, 아주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지? 혹은 외부 사람들을 유입시킬만한 유인 거리가 정말 되는 것인지?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그런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납득은 되죠. 그런데 “정말 이게 지역소멸에 도움이 되나?” 라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답변할 수 있는지는 어떤 것이죠.

정병국 위원장 : 선정한 단체를 가서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이게 일주일 사이 한 달 사이 정주할 수 있게, 귀촌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 아주 디테일합니다. 그 단체들의 매뉴얼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잘하는 분들이 있고, 매뉴얼이 없어도 지역 주민들과 잘 어우러져서 별도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요. 그래서 6개 지역을 다 묶어줬습니다. 그래서 장점들을 교류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몇 군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부대로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대로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농림축산부는 농림축산부대로 전부 사업으로 지역 살리기를 하는데 가서 보면 하드웨어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다 비어있어요.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도 없어요. 그래서 착안을 한 것이 주체가 있는 데를 지원해야겠다고요. 어떤 데는 가서 젊은 친구들이 귀촌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관에서 아예 배제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엮어주는 작업을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지만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들어온다는 관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던져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해서 몇 년 동안 했는데 강화도 같은 경우에는 8년째 하는데 15명의 예술인을 거기로 유입시킨 겁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은주 위원 : 그러면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소멸이나 지역불균형은 사실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방소멸이 2가지 문제일 수가 있거든요. 하드웨어적인 문제냐?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냐? 그러면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예술을 활성화시켜서 소프트웨어 개념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인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요즘 그러잖아요. 지원이 없는 곳에는 예술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듯이 지역의 문제는 그 예술의 결과물을 저희가 단시일에 얻을 수는 없지 않겠나?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 1명의 예술가가 있고 단 1명의 활동가가 있어도 지역의 문제는 저희들이 연속적으

로 지원해야 된다.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저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어디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인지? 하드웨어나 그 지역의 문화예술을 활성화 시키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어쨌든 연속적으로 이런 지원을 끊으면 지역의 불균형은 앞으로도 심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사업명의 문제인데요. 지금 지역소멸위기대응 문화예술사업이라고 하면 문화예술사업을 통해서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못합니다. 2015년도부터 10년 이상 술하게 여러 부처에서 여러 방식으로 예산을 투입했는데 한두 폰이 아닙니다. 지금 지방자치 편람을 보세요. 그런데 사업명을 이렇게 해 놓으면 마치 극복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소멸위기에 있는 지역을.....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게 낫죠. 이렇게 제목이 되니까 오해가 생기는 것이 고요.

정갑영 위원 : 그래서 실제로 지역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이 점점 더 중앙 정부에 의존하게 만들고요. 점점 자치력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사업이라서 여기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다들 보셨다고 그러니까 그냥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예술인들을 도와주는 의미로 생각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안 가봐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답송한 버스를 주공연장으로 활용해서 왔다갔다 하는 이동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다는 모르지만 고성도 가서 봤지만 고성은 인구가 2만도 안 되고요. 협소한 문화의 집에서 극단을 동원해서 연극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에 대해 현장을 가서 평가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3,000만 원씩 아닙니까? 그러면 2번 공연이니까 1,500만 원씩 쓰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자칫 푼돈처럼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사무처에서 현장을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럼요. 고성도 제가 가봤거든요. 가서 봤는데 정말 거리가 다 죽어있고 가게도 다 문을 닫았고요. 거기에 이 사업을 키오편할 때 가봤더니 제일 먼저 될 하느냐 하면, 예술인들 한 달 살기를 해서 30명이 내려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의 민박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시작했고 지역주민들이 처음에는 문을 닫고 있다가 같이 어우러지면서 여기에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런 작업을 공동으로 하더라고요. 공동으로 하는데 그런 작업을 할 때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면 또 다른 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러면서 의외로 고성에 예술인들이 몰리는 핫플레이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귀촌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러한 계기성으로 엮어주면 하나하나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연극인들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연극인들이 공연을 하는데 고성 5일장 등에서 사람들이 몰리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의외의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주체가 있는 데를 지원했다고 하는 게 굉장히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먼저는 대부분 서울에 있는 기획사가 기획서를 써서 지자체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따올 테니까 하시겠어요?” 그러면 ‘OK’라고 하면 하드웨어를 구축해 놓고 3년 정도 해서 예산이 떨어지면 철수해 버리고 비어있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전례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자체한테 바로 예산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활동 단체에게 직접 주고 우리가 컨트롤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정갑영 위원 : 하여튼 사무처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안전번호 제1069호 2024년 심의위원 후보단 총원 계획(안)입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2024년 심의위원 후보단 총원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위원님들과 사무처가 여러 절차를 거쳐서 지원심의제도운영개선 TF를 통해서 1,983명에 달했던 심의위원 후보단을 666명으로 적격자 선별방식을 통해 총원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다만, 저희가 666명의 심의위원 후보단으로 2023년 공모사업을 운영한 결과 현실적으로 특정 장르, 특정 세부 분야는 인원이 부족하다는 내부의 어려움이 발생했고요. 그 과정에서 실제 어느 분야가 부족한지를 살펴본 결과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분야는 설정해 놓았으나 실제 인원은 5명도 안 되는 세부 분야가 23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 중반에 여러 추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전담심의위원까지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심의위원 후보단 인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사무처와 위원님들 모두 말씀해 주셔서 2025년 공모에 들어가기 전에 심의위원 후보단 총원을 먼저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진 개요를 보시면, 이것은 총원이기 때문에 2023년에 후보단 운영 계획을 통해서 설정했던 운영방향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지난 3월에 전담심의위원을 구성했던 방식대로 사무처와 장르별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적격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만, 오늘 보고를 드리는 것은 지난주에 예술창작소통 소위원회를 통해서 기본방향을 설정했고 이후 세부적인 내용은 신입 위원님들이 오신 다음에 변동된 사항이라든가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각 위원님들 그리고 예술창작소통 소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비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추진 일정을 보시면 매년 연례적으로 9월 말에 공모계획을 의결하기 때문에 공모계획 의결과 후보단 의결이 같은 안건으로 올라오면 검토하셔야 될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9월 중순을 목표일정으로 잡고 후보단 확정 의결을 서면의결로 요청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총원 요구 현황을 보시면 내·외부 의견수렴을 먼저 거쳤는데요. 이 페이지는 안전자료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47페이지에서 4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내부 사무처에서 필요하다고 했던 각 분야별 수요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666명을 가지고 심의를 했을 때 현황분석이 어땠는지가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지원총괄팀에서 살펴보고 어느 정도 적합한지를 살펴보았을 때 문제점이, 지금 51페이지를 보시면 각 세부 분야별로 심의위원단 후보단이 몇 명으로 설정되어 있었다는 당초의 관리표가 심의위원 후보단이 신청했을 때 1지망으로 했던 분야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면 희곡, 문학일반, 조각 설치, 사진·영상, 안무, 실연 등 5명 이하로 되어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표에 대해서 지난 소위원회 때 위원님들께서 2지망까지 포함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을 요청하셔서 2지망까지 정리한 표가 그 다음페이지인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에 현원2 라인을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이 조금 변동되었고 그것을 반영해서 지금 45페이지 분야별 총원 규모안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사무처에서 희망했던 운영규모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 총원될지는 알 수가 없고, 실제 이 분야가 과연 총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총원 요구사항은 110명 내외지만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심의위원 후보단 총원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은 지난 해 장르별 예비 선정위원회를 거치면서 당시 예비선정위원회에 참여하셨던 심의위원 후보단에 계시는 16인은 심의참여 금지를 요청드려서 1년 동안 심의에는 참여를 못 하셨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2025년도 지원사업은 심의에 참여가 가능하신 것으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비정지 재검토라는 사항은 심의위원 후보단 선정 후에 권익위에서 부정행위 관련해서 조사를 착수한다는 안내가 있어서 이분은 예비정지 상태로 되어있었는데요. 권익위에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종결 처리가 된 것으로 확인돼서 이분도 일단 해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원심의제도운영개선 TF에서도 검토를 하신 사항인데요. 2020년 당시 블랙리스트 관련자 6인에 대해서 한시적 제한조치를 해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활동기간에 대해 그 당시에는 1년 정도를 적용해서 안을 만들어놨으나 작년에 지원심의제도운영개선 TF 때까지도 의사결정이 정확하게 안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당시 담당 주무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안내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이 돼서 이번에 검토를 하고 장르별로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신 바도 달라서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지난번에 회의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중에서 아직까지 다 반영이 안 되었는데요. 일단 부족한 심의위원을 보충하는 것은 공감을 다 했고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1차적으로 심의위원 후보단의 세부 분야가 지역 같은 경우 “복수로 체크 할 수 있도록 재점검을 한 후에 보충하는 것으로 하자.” 이런 부분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자꾸 빠져서요. 그런 부분을 좀 넣어줘야 한다는 것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저희 파트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전통예술의 범주가 사실은 전통음악, 전통무용, 공예까지 포함되는 것이지만 현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거의 전통음악으로만 국한되어 심의를 하고 있는 게 큰데요. 공예가 들어왔을 때 시각 쪽으로, 또 한국무용의 경우는 무용으로 분류를 해줘야 하지 않은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이 전통예술 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심의위원 구성을 할 때 추가인원으로 해당 인원을 조금 더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위원님들께서 지난 소위원회 때 말씀해 주셔서 8월 8일로 예정되어 있는 소위원회 전까지 사무처에서 안을 다시 마련해 볼 예정입니다.

김미라 위원 :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심의위원 후보를 다시 구성할 때는 전담심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이었잖아요. 그 이후 전담심의제가 나와서 전담심의관도 계시고 올 상반기 때 몇 개의 공모사업을 케이스 스터디를 해서 실제로 전담심의제를 도입했을 때 전담심의위원들이 해야 되는 일의 분량과 그렇게 했을 때 전체 공모사업을 진행하면 어느 정도의 풀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가늠해 보자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담심의제를 시행해 보고 심사를 해본 선생님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의 업무를 해야되므로 공모는 이만큼이 적절하다.” 라고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실제로 추가 심의위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것에 가장 큰 취지나 맥락, 배경은 전담심의제도 시행을 통해 받았던 의견들이 자료에 좀 반영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지금 전담심의제는 내년에도 전면 도입은 아니고 일부 핵심 사업 중심으로 확대할 예정인데요. 다만, 이 자료에 담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기재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구조가 어떻게 설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후속으로 다시 보고를 드릴 사항이기는 한데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작년에 심의위원을 섭외하고 전담심의위원을 구성할 때도 항상 문제는 3배수, 5배수로 구성해도 그분들이 섭외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나, 혹은 작년에 지원심의제도운영개선 TF에서 결정했던 사항이 심의위원 후보단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한테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같은 시점에 이루어지는 심의는 한 번만 참여하실 수 있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추천했는데 다른 심의에 참여하시게 되면 위원님들은 또 섭외(안)을 마련하는 등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보다 충분하게 인원이 구성돼야 하는 것이 제척이나 회피가 일어나는 분들 혹은 재직하고 계신 직장 때문에 사실상 전담심의위원으로 활동하실 수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분들을 빼고 나면 모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 사항은 전담심의제를 다시 보고드릴 때 포함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미 위원 :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해야하는 심의가 있잖아요. 심의별로 각각 장르끼리 다 다른 날짜로 연락이 오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계획을 세우고 먼저 회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저희가 그날 회의 때 와서 한꺼번에 일단 풀을 구성해야지 어떤 장르마다 이분을 추천해 줘도 “계속 안된다.” 이래서요. 저희가 그 전에 다른 데에 선정이 되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에너지소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할 때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한꺼번에 얘기해서 필요한 심사 풀을 한꺼번에 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그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들어서 이번에 심의계획을 준비할 때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이것도 약간 변의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또 일을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한데요. 작년에 해보니까 사업들이 정기공모가 있고 중간에 추가되는 공모사업이 있다 보니 외부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추천해 달라고 연락이 오면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태가 많아서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장르별로 언제쯤 대략 어떤 사업들 그리고 몇 명 정도로 정리되는지에 대한 일정표를 주시면 저희들도 그것을 보면서 “이쯤에는 이런 위원님들을 추천해 드려야 되겠다.” 라고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으면 조금 더 빠르게 일이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 알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현재 내년도 공모사업에 대해서 내부에서 나름대로 TF라고 할 수 있는 모임을 짜서 일정별 로드맵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전담심의제로 가려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수월성 부분이 약한 부분은 전담심의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요. 거의 전담심의관제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양이 너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쪼갤 수 있는 부분은 1차, 2차로 해 보자는 것을 포함해서 이번에 4개 시범사업으로 했던 부분을 지금 반추하고 있고 심의위원 중에 사무처 소속의 전담심의관 리포트를 위원장님께서 다 검토를 하시고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서 9월에, 내년도 정기공모를 하기 전에 잘 반영해서 로드맵에 따라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심의위원 후보단 부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전담심의관이 하면 여러 개 사업을 한 분들이 그 장르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커집니다. 말하자면 중복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의미는 뭐냐 하면, 지금 전담심의위원도 활동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전담심의위원 분들을 제외하고 적격자 방식으로 가야 될 사업은 이 풀 내에서 위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로드맵과 재정비를 하시면서 한 가지만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일정과 언제쯤 무슨 공모가 있을 것인지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의 사례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먼저 연락 오는 중요한 사업에 좋은 분들을 먼저 추천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또 연락이 오면 “이 사업도 중요한데” 라고 해서 하려면 이미 앞에서 추천을 다해버렸습니다. 전반적인 일정을 먼저 알고 있으면 “이분은 이 사업으로” 라고 대략 머릿속에 구상을 할 텐데요. 먼저 연락이 오는 쪽에 더 좋은 분을 추천하다 보니까 후에 들어오는 사업에 적절하게 배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전체적인 로드맵이 같이 공유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알겠습니다.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김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4개의 사업을 전담심의위원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각 장르별로 위원님들과 검토회의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47쪽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너무 심사량이 많다.” 라는 부분. 그리고 “특정 세부 분야가 없다보니 충실한 심의를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충원 같은 경우에는 세부 분야에 대한 충원인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이 후보단을 정비해 놓고 전담심의제를 어떻게 확대 개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술창작소통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진행하겠지만 김미라 위원님께서 시간이 되시면 별도로 안내를 드려서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일반 분야는 소위원회에 배은주 위원님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배은주 위원님과 논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진각 위원 : 후보단 중에서 666명인데 1번 이상 심의에 참석한 사람이 45%고 나머지 55%는 한번도 심의를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맞습니다.

김진각 위원 : 가장 큰 원인이 뭔가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666명으로 줄었을 때 분명 그분들이 적격자분들이지만 심의일정에 도저히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지원사업에 신청하신 분들이 적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척이나 회피가 발생하신 분들을 제외하면 남은 분들이 없어서 장르 위원님도 어려움이 크셨다고 들었습니다.

김진각 위원 : 사실 이 제도 자체는 되게 균형이 안 맞는 제도잖아요. 이렇게 되면 한번 이상 심의에 참여한 사람이 반도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심의위원이 모자르다고 또 충원한다? 좀 이상하잖아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다만, 전면으로 다시 모집공고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5명 이하인 적은 분야를 대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실 예정이고요. 향후 1차적으로 검토한 것은 한번도 참여하지 않은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추천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게 참 쉽지가 않은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것을 조금 더 소수 정예화해서 전원이 심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해서 압축적으로 해 놓았는데요. 김진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도 안 돼요. 제일 큰 문제가 제척과 회피 대상이 많더라고요. 다 예술인들이라 현장에서 활동하시니까 이분들도 다 사업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신청을 본인이 했거나 본인과 관련된 단체가 했거나 하니까 제척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분들은 다 현업에 있는 분들이니까 심사일정, 우리가 전담심의관제로 가게 되니까 일정을 다 소화할 수 없다고 해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상적으로 소수정예로 해서 끌고 가기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김진각 위원 : 그러니까 100명 이상을 또 뽑게 되면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이것은 사무처에서 이렇게 필요로 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공유해 드리는 차원에서 자료를 준비한 것이고요. 사실 예술창작소통 소위원회에서도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계셔서 그만큼 충원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김진각 위원 :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만약 이게 픽스가 된다고 하면 제도 자체를 다시 검토해 봐야합니다.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죠.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맞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서승미 위원 : 57페이지를 보면 심의위원 모니터링 평가 같은 경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승미 위원 : 하고 있는데 이런 평가는 몇 분이 하는 건가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심의가 종료된 다음에 담당 간사로 참여했었던 담당자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극단적으로 평가하지는 않고 그 당시 특이한 이슈가 있으면 공유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승미 위원 : 이 심의위원에 대해서 모니터링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심의위원들이 알고 있나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서승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안건번호 제1070호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61페이지 안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보고안건으로 말씀드린 위원회 상정안건 기준을 규정화하는 사안에 대한 것입니다.

제안사유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필요한 세부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회 심의·의결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제안드립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운영규정 상 위원회 전체회의 부의안건 기준을 신설해서 위원회 상정 안건의 구분을 추가하고요. 특히 의결안건 상정 규정을 명확히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위원회 안건 상정 기준을 신설하기 위해서 위원회 운영규정 상 제4조의 2에 부의안건의 구분

을 추가했습니다.

제1항은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고 명시하고 그에 대한 1호는 의결안건, 2호는 보고안건 등을 넣었습니다. 여기에서 의결안건과 보고안건 등으로 한다고 명시한 이유는, 다른 기수 위원회 안건을 보게 되면 논의안건과 같이 다른 안건의 종류가 들어간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 이 안에는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해서 ‘등’을 넣게 되었습니다.

2항은 의결안건 상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제1호와 같다는 내용인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별표 제1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예진흥법 제30조 제1항에서 8가지 호로 위원회 직무를 명시하고 있고 각호에 대해서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위원회에서 수립하고 있는 계획을 오른쪽에 배치시킨 것입니다. 대부분은 현재도 의결을 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일부 누락된 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문제제기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호에 있는 기획사업 계획 수립이라든가 4호에 있는 소유시설의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6호에 있는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교육·연수에 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무처에서 의결안건으로 올리지 않은 사항으로 이번 안건 기준에 추가함으로써 앞으로는 의결안건으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 정관 15조 역시 위원회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정관 제15조 제1항 제1호는 문예진흥법 제30조에 1항 내용과 같고요. 제2호는 위원회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제3호는 제29조 위원회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이번에 별표 제1호 위원회 의결안건 상정기준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회차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건들이 모두 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대략 계산해 봤을 때 의결안건 같은 경우 15건에서 20건 정도고 보고안건 같은 경우도 대략 20건 이상 추가로 확대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사업, 시설관련 계획, 정책연구 관련 계획 등 새롭게 추가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연초에 위원님들이 함께 모여서 추진하게 되는 워크숍에서 일괄 보고를 드리고 이후 진행사항은 소위원회 등을 통해서 체크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의결안건으로 올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내용을 지난 회차 회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앞 페이지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3에 위원회 위원의 응모와 제척·기피 등의 내용은 내용을 고려해서 부의안건 구분을 제4조의 2에 추가하면서 기존에 있던 제4조의 2항목을 제4조의 3으로 변경하는 것까지가 이번 의결안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 지난 전체회의 때 보고안건으로 드렸기 때문에 몇 분께서 의견을 이메일로 회신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결안건 상정 기준에 대한 내용보다는 예를 들면 미술관이나 극장에서 우리 공연을 하거나 전시를 했을 때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 건들은 보고안건으로 처리하거나 개별 위원님들께 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상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보는 게 다 안 뜨나요? 열어보실 수가 없나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지금 위원님들도 업무포털에 올라오는 것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거기에 다 알려지잖아요. 공연이나 전시 부분이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다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시스템을 통해서 접근하게 되거든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다 올려드려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앞으로는 안전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연락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전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보고 사항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은 2024년 경영전략 소위원회 워크숍 개최 결과에 대해서 정갑영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김성범 팀장이 설명해 주시죠.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내용이 좀 많아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경영전략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경영전략 소위원회에서 다루는 2가지 주요 안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중장기전략 수립이 있습니다. 지지난 회차 때 이 안건을 진행한다는 보고를 드렸고요. 지난 6월에는 환경 분석을 일단락하고 그에 대한 분석결과를 7월 5일에 경영전략 소위원회 워크숍을 통해서 위원님들과 공유하고 함께 논의를 하면서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일단 모든 위원님들께 공유해 드리고자 보고안건으로 올렸고요. 이 결과 보고가 사실 분량이 많은데 오늘은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지원사업의 결과가 지원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목적에 근거해서 본다면 ‘모든 이가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한다’는 기관의 설립목적을 실현하려면 현재의 예술계 중심의 비전에서 국민지향의 비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를 반영한다면 현재 비전인 ‘창조의 기쁨을 함께 만드는 예술현장의 파트너’는 현 시점에서 적절성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국민지향이 드러나는 워딩으로 변경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또한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50년의 지원결과가 국민의 기초예술의 향유나 예술계의 자립에 얼마만큼 기여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원의 결과를 국민향유 또는 예술계의 지속가능성 측면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더불어 합의제 구조로서 위원회의 독립성을 고려했을 때 지금보다 더 자율성을 가져야 하며, 지난번 유인촌 장관께서 나주 본관에 방문하셨을 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초예술 정책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에 대한 역할도 역시 전략에 반영해서 향후에는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는 전반적인 운영 방향성에 대한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창작지원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작지원 분야에서는 현재 너무 장르별로 또는 기능별로 내내역사업 단위까지 사업들을 너무 분리해 놓고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대략 평균적으로 봤을 때 500억에서 700억 정도의 지원사업의 내내역사업이 대략 28개에서 30개 정도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목적이 너무 불분명한 채로 세부화만 되어 있고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소액다건 형 지원사업으로밖에 추진될 수

없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것들을 조금 더 통폐합을 하고 묶어서 단일 규모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기능별 포괄 보조사업도 더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ACE의 NPO 지원방식같이 예술생태계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예술단체로부터 제안받아서 이에 대해서 평가하고 조금 더 폭넓게 지원하는 방식도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을 워크숍 때 주셨습니다.

다음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이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한 체크와 환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사업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성과 측정 방식 역시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지금 예술위원회에서는 너무나 많은 좋은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 지원심이나 지원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많은 좋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다. 예술위원회에서 생성하고 있는 좋은 데이터를 잘 확보하고 다듬고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향유 지원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나는예술여행 사업이 올해까지 수행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우리 기관의 향유사업은 통합문화이용권, 청년예술패스 같은 바우처 형태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현재 통합문화이용권의 재원인 복권기금의 법정 배분화를 추진해 보고자 기재부와 논의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것이 실현되게 되면 그 예산의 활용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새로운 향유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2024년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대략 240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일반회계 및 체육기금 수탁사업 같은 것도 대부분이 국민의 향유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들이 많은데 그 사업도 역시 저희 전략 내로 포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기관의 기금처럼 잘 관리하면서 향유사업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가치확산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치를 일단 확산하기 전에 예술이라는 또는 예술지원이라는 것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측정하는 가치측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창작과 향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 국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 효용 역시 측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가치확산이 우리 기관에서 다뤄지고 있는 수준보다 더 주요하게 다뤄짐으로써 예산이나 조직, 인력 측면에서도 조금 더 보완되고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지속가능 측면에서도 국고가 한계에 달했을 때 지속가능한 예술창작을 위해서는 언제까지 국가의 재원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민간재원이 반드시 매칭됨으로써 전반적인 규모는 키워되 공공에 대한 의존도는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예술가를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술생태계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예술계에 연관된 다양한 전문가나 전문단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영국예술위원회의 SSO라고 하는 마케팅이나 예술계의 금융, 회계, 연구개발 등 예술을 생성하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를 육성하는 것 역시 예술위원회에서 가치확산 차원에서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장의 기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예술계의 지원체계를 보면 예술위원회 외에도 다양한 지원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그리고 현재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극장, 미술관, 예술가의 집도 있고요. 최근에는 아르코꿈발극장까지 새롭게 운영하게 되었는데요. 적지 않은 개수와 사회적으로 봤을 때나 장르적으로 봤을 때 꽤 큰 규모를 가진 시설들이 지금은 개별 목적을 가지고 별도로 운영되는 것 같은 면이 있는데요. 이 역시 예술위원회 소속 공간으로서 조금 더 명확하고 공통된 정체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함께 홍보, 마케팅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안건을 마치고 중장기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 외에 환경 분석을 한 것이 대략 120페이지 정도가 되는데요. 그 자료와 함께 시사점이 나온 풀 버전을 위원님들께 이메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주십사 요청드리고요. 여러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8월에는 사무처에서 또 예술계 그리고 대국민 의견을 여러 번 조사했고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하면 9월 내에는 이 모든 의견들을 과제화해서 9월 또는 10월에는 의결하는 것이 목표로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 과정도 계속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사무처에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면, 기관 중장기전략수립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무처에서 얘기한 내용에 덧붙여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워킹그룹에서 추진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술위가 기관의 운영방향을 알 수 있는 게 비전이라는 건데 비전이라는 개념을 보면 과연 우리 예술위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지금까지 해 왔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비전은 예술위가 지향하는 최종 목적지와는 조금 괴리가 있다. 그래서 최종 목적지가 뭐가 되어야 하는지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예술가나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것. 그런 쪽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틀을 그대로 가져가야 하는가? 이것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원의 어떤 결과물이 전혀 가시화되거나 데이터화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앞으로 50년을 이런 식으로 계속 가져간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그래서 결국 예술지원정책의 최종 타깃은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비전이 예술가나 예술단체에서 국민으로 바뀔 경우 여기에 따른 전략도 다 바뀌어야 되고 사업내용도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장르 중심의 기계적인 지원이 시대와는 맞지가 않다. 그래서 기능 중심으로 가는 방안. 중장기적으로는 기능 중심으로 가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맞물려서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의 예술지원 체제라는 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이 하는 방향과는 전혀 맞지가 않는 지원체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나라들도 예술가나 예술단체를 지원하지만 우리나라처럼 이런 식의 예술지원을 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다. 그러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술계의 자생력이랄까, 그러니까 예술계가 스스로 자립해야 되고 정부가 지원해 준 것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고요. 이런 측면이 소홀하게 다뤄진 측면이 있다는 거죠. 결국 공적 지원에 너무 의존하게 됨으로써 나타나는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이 간과된 상태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예술계의 자생력 강화 차원에서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기회에 지금까지의 공공지원, 맹목적인 공적지원이 굉장히 큰 역책임이 있다는 문제의식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술계가 좀..... 그렇다고 해서 예술지원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예술지원의 체계나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내용들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술계가 공적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지금은 지원 의존도가 80%나 되는 상황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지원은 자제하고 정말 효율적인 지원으로 가는 방향. 이런 방향을 정해서 가는 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창작이나 향유, 가치확산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술위원회가 50년이나 되었지만 전혀 국민들에게 어필되는 브랜드가 되지 않은 이유.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술위원회는 일반 국민들과는 관계가 없다는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개선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전략이 짜여야 되고 가장 큰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전이 그려져야 한다는 내용들이 저희 워킹그룹에서 논의가 된 내용입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여쭙봐 주시면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죠.

홍성태 위원 : 애를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요. 지금 문제점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가 가는 비전 목표도요. 그런데 쪽 보니까 분야별로 세부적 점수는 잘 나와 있는데 비전이나 목표로 가는 로드맵은 언제쯤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전략적으로 보면 우리 아르크의 존재감을 위해서 우리가 시그니처 프로젝트 같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들. 그리고 최종 타깃을 예술가가 아닌 국민으로 간다. 그러니까 의존도를 줄이는 것은 되게 좋거든요. 구체적인 그림들을 우리 위원들이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일정을 말씀드리면 8월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의견을 수렴해 보고 9월 중에 로드맵을 과제화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9월 중에는 초안 수준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의견을 여쭙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워킹그룹이라고 해서 경영전략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사무처에 있는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 박사님들 그리고 기획조정팀원들이 참여해서 워킹그룹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김진각 위원님께서 총괄해서 모든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김진각 위원님께 여러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잘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라 위원 : 오늘 내용을 들으면서 사실 오전에 시각예술 생태계 연구와 관련해서 회의를 한번 하고 왔습니다. 결국 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현황을 왜 조사하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결국 우리 지원사업의 방향 그리고 현재의 흐름과 받을 맞춰서 갈 수 있는 지원사업의 역량 강화나 범위 확장 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목적을 갖게 되다 보니까, 오늘 제가 이것을 듣다보니 경영전략 소위원회에서 하고 계신 중장기전략 비전에 대한 방향과 같이 결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조정팀장님이 자료 공유를 해 주신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이 아마 이 생태계 연구를 각 파트에서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각각의 파트에서 이런 예술생태계를 조사 연구하는데 유의미한 자료가 있겠다라든가 아니면 같은 정도의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자료가 있으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말씀하신 생태계 연구조사 역시 진행사항을 계속 파악하고 있고 예술계의 의견수렴 등은 생태계 연구조사와 함께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는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보내드리고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안건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두 번째 보고안건은 2024년 예술창작소통 소위원회 4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이훈경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훈경 위원 : 예. 예술창작소통 소위원회 4차 회의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장르별로 현장간담회를 진행하고자 지난 회의 때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로 연극 분야 현장간담회를 마쳤습니다. 대한민국연극계 100인 토론이라는 프로그램 내에서 1부는 연극계에서 자체 토론회를 진행했구요. 2부에서는 예술위가 진행을 하면서 사업설명을 해 드리고 지역에서 거의 100인 정

도가 오셨기 때문에 설명드린 예술위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 내에 계신 예술가들의 질문 그리고 필요한 제안사항을 쪽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

무사히 잘 마쳤고요. 연극 같은 경우에는 그날 현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고 요구하셨던 내용이 지역에서는 예술위 사업이나 현장 생태계에 대해서 잘 파악이 안 되니 지역으로 내려와서 간담회를 주최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극 분야 같은 경우에는 추후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2~3군데를 더 들고자 하는 것까지가 연극 분야 간담회로 끝났고요. 그 이후 전통예술 같은 경우 서승미 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진행될지는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용이나 음악 같은 경우에는 새로 오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면 그분들과 의논해서 어떻게 현장간담회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장애문화예술 분야 생태계 파악입니다.

마침 장애문화예술 분야에 배은주 위원님께서 진행하시는 축제가 있어서 8월 28일 오후 3시에 청와대 춘추관 실내 전시관에서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1부는 발제와 토론, 2부는 간담회로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장애예술 또는 비장애예술 등 함께 하시는 모든 예술가들이 모여서 현장 생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니 우리 위원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을 나눠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은주 위원님께서 공간 확정이나 발제위원님 등 모든 제반사항들을 진행하고 협조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심의위원 후보단에서 아까 총원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사전에 저희 소위원회와 조금 이야기를 해서 정리를 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내용을 발표해 주신 것 같습니다. 후에라도 조금 더 필요하거나 보완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이 부분은 소위원회하고도 의견을 나누시고 그 외에 필요한 방식으로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아까 잠깐 말씀이 나왔는데 예술생태계를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 장르별로 다 조사를 하고 있는 관계로 마침 예술창작소통 소위원회에서 장르별로 예술생태계 간담회를 진행하려는 것과 너무나 잘 맞아떨어져서 아마 상호협조해서 예술생태계를 조사하는 연구와 소위원회에서 하는 현장간담회가 같이 진행되면서 상호 필요한 부분이 보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술창작소통 소위원회 내용은 이 정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죄송합니다. 제가 장애문화예술 쪽을 9월 28일인데 8월 28일이라고 말씀드렸네요. 9월 28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8월 위원회 전체회의와 관련해서 사무처장은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숙 위원 :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발언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말씀하십시오.

정정숙 위원 : 기타의견으로 제가 우리 위원님과 위원장님 그리고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것은 환송 발언이 아니고요. 일주일 전부터 제가 고민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제가 고민했던 게 뭐냐 하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몇몇 언론을 통해 특정 정당의 현안과

개선점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전문가이시고 워낙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예술위원회의 대외적인 파워가 올라가고 간접적으로 우리 예술위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응원의 마음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예술위원회는 예술인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하는 거죠. 응원하고 지원하고 그런 일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보호하고요. 그런데 예술인들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때 그 자유는 정치적 세력화를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철학이랄지 우리가 보편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진 발언들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 줘야 하고 최대한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우리 예술위의 직원들이 혹은 위원들이 특정 정당의 개선사항을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상 위원은 정당의 당원이면 결격사유입니다. 왜 정당의 당원이 결격사유인지 그 맥락을 생각해 보면, 그 사실이 예술위 활동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맥락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술위원회의 역할은 예술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 지원을 통해서 예술인들과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시키는 기관이지, 정치나 정당과 관련된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술위의 설립취지, 활동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런 행보들이 예술인들에게 자칫 오해의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생각하면 우리 직원이나 위원님들 중에서 만일 정치계의 활동이 너무 안타까워서 발언이 하고 싶다. 예술위를 떠나서 그쪽 정치권에 몸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 예술위원회 위원님들, 직원들이 우리 예술위의 본질이나 취지와 맞지 않은 자유를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거의 일방적으로 떠드는 셈이 되었는데요. 짧은 전체회의 시간에 누군가의 설명을 듣고 싶다는 것 보다는 떠나는 마당에 속기록에 공식적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우리 정정숙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정치적 발언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예술위가 할 일이 있고 정치가 할 일이 있다고 하지만 정치가 바로 서지 않고 예술이 제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발언을 할 때 어떤 정당에 치우침이 없이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가치 중심적인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다. 이런 나름의 판단을 해서 주의하면서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되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무처장은 8월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일정 조정)

5.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8월 위원회는 8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78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02분 종료)